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5남·7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집회 후에 세미나실에서 수양회 준비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집회는 6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환경선교주일입니다. 초록가게에서 초록장터를 엽니다. 이를 위해 물품을 기증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자리를 찾아본 것이 언젠가요. 하루 한 번 밤하늘의 별을 바라봅시다.

식 당 봉 사 : 박홍재 차혜심 허명선 정연희 한상경 정선희 이광욱
 6/10 식 당 봉 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임미심 김문주 정복순 문홍일
 오늘설거지봉사 : 신영신 이근식 이은정 김영아
 다음 주 설거지 : 한세미 노준우 양상철 박재란
 새 교 우 : 김정혜(4여)
 커 피 대 접 : 박아영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버림받은 땅,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땅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일 당장 뽑힐지 몰라도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을 심는 이들을 보살피 주십시오. 힘겹게 심겨진 생명들이 온갖 시련 이겨내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마다의 고통에 사로잡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이 만든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웃들이 토해내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광상준 최경미 권 순 김기석 김희우 김범진 김미현
 김수진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 유경 김인걸 김영혜 김범종 김고영
 김준우 우순덕 김지윤 김지호 전해리 김희진 김문박 박홍재 노미향 박범철
 박미영 박상규 배부례 박옥식 방문성 박해경 방민식 박준배 박삼순
 배재경 이수정 손성현 안경아 송동수 김진경 김진경 김윤정 안세진
 안정숙 양상철 박재란 양재성 왕수명 유지은 신성윤 이민준 이주희
 구성실 이계선 이소순 이광용 형인우 이근우 이동천 이민준 이주희
 이봉배 이성범 권현숙 이예서 임승동 백혜숙 장동훈 정은선 전희원
 김창경 이진영 한양미 임승동 백혜숙 장동훈 정은선 전희원
 정현선 조병익 조정연 차혜심 최원순 추현성 한성건 한완식
 한인철 조윤숙 허준호 황경순 황원순 황지황 황현성 이오복

감사헌금:

김종락 박영신 박숙영 송동준 김진경 윤석철 장혜숙 이영우 이증자
 나오미선교회 무명5

녹색꿈헌금:

광상준 최경미 김범진 김미현 이영순 이진영 한양미 정수현 한기택

생일감사헌금:

김지호 박옥순 허성호

장혜숙	백혜숙	장혜숙	송임회
노순옥	박성희	김윤수	심소순
최희영	최경미	차혜심	이명희
장영숙	신영신	박정숙	박옥순
정경례	진정숙	정경례	조영순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배삼순
박호선	허정윤	박호선	오복순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구성실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주자선
안홍숙	오현정	김현희	정영성
정영선	서정순	김희영	백성래
박혜경	조향미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풀이 보이지 않는다

고형렬

어느 날 풀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놀란다
 풀들에게 눈이 있었다, 계속 풀을 뽑아 던지자 풀들이 눈치가 생겼다
 풀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어딘가로 숨는다, 나는 처음엔 은유를 알지 못
 했다
 풀들은 나의 발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두려움에 떠다
 풀들을 찾는다, 풀들이 보이지 않는다, 풀들이 사라졌다, 풀들은 영민해지고
 나의 눈은 어리석어졌다, 낮 속에서 풀들은 밝아지고 나의 눈은 어두워진다
 이 들은 끝없이 도망하고 추적한다
 나는 풀들에게 모든 것을 노출한 채 잔디밭에 앉는다, 한숨 쉰다
 풀들은 광선 같은, 어둠속 눈부처의 움직임에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는다
 그 법을 그들은 체득했다, 나는 제자리걸음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 끊임의 제자리걸음으로 버틸 작정이다
 풀들은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보다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풀들은 나의 눈에서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진다, 하지만 나는
 풀들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나이, 이제 풀의 소리를 듣는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오지은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
 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면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넉넉히 이룰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지혜를 모아가며 일
 하겠습니까. 미소 짓는 얼굴로 서로를 존중하며 기쁘게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기쁨을 맛보
 며 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주최예배 말씀 : 김기석 목사	6월 기도의 밤 인도 : 김재홍 목사

다음 주 예배 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상익 장로	박아름 선생 이근식 집사

6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용진 김남종 오복순 박효선 강순배
	헌금위원	윤석철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가장 부끄러운 고백

-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주님, 저는 이달에 한 번도 주일미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니다. 속이 상할 때나 무슨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주님 주님, 하면서 오로지 주님하고만 의논을 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중 병든 이나 힘든 일을 당한 이, 수능 시험을 치른 아이들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화살기도도 열심히 바쳤습니니다. 이만하면 주님, 착한 일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타오는 상장감이 아닌가요? 주님은 상장을 주시지는 않지만 별의별 쑥스러운 비밀을 다 털어놓아도 남한테 전하실 리 없으니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주님을 믿고 한 가지 고백을 더 하겠습니다. 어제는 가서 축하해 줘야할 결혼식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잘 아는 집인데, 한 집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부잣집이고, 한 집은 근근이 착하게만 사는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부잣집엔 하객도 많을 테니 저 같은 사람은 참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겁니다. 어려운 집엔 손님도 많지 않을 테고 저 같은 사람도 그 자리를 빛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쨌든 줄 아십니까? 제일 좋은 옷으로 멋을 부리고 축의금도 제 형편으로는 과하게 준비했습니다. 부잣집 결혼식에 갈 작정을 한 거죠. 물론 그보다 알뜰한 봉투도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소한 봉투는 마침 인편이 생겨 그쪽에도 부탁을 했지요. 요즘은 같은 교통난에 비슷한 시간대를 두 탕씩 뛰는 것이 불가능한 바에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신에게 변명을 했지요. 부잣집 결혼식에서 줄서서 기다렸다가 한구석에서 잘 얻어먹고 집에 오면서 제 자신이 문득 모래알처럼 초라하고 왜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잣집 잔치에서 옷 잘 입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제야 제가 일을 거꾸로 처리했다는 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사람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어야 하는 게 사람 도리인데 왜 번번이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번만이 아니라 번번이 그런다니까요. 왜 이런 고약한 버릇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을 개탄하면서 행동으로는 번번이 부익부 빈익빈을 돕는 짓을 하고 맙니다. 오늘만 해도 그랬습니다. 백화점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한 푼 깎을 엄두도 못 내지요. 깎기는커녕 물건 값이 얼마인지도 확인해보지 않고 대충 필요한 걸 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집에 와서 과일이 썩은 걸 발견해도 깎소리도 못하니, 표기된 무게나 제대로인지 알 게 뭍니까. 그렇게 못나게 굴다가도 전철역 앞 노점에서선 별안간 이악해집니다. 할머니가 벌여놓은 푸성귀가 하도 싱싱해서 걸음을 멈추고 흥정을 할 때는 제법 똑똑한 척까지 합니다. 이리저리 뒤척여보고 천 원어치가 애개개..., 요것밖에 안 되느냐고 덤을 달라기도 합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기껏 광주리장사한테 말입니다. 슈퍼에선 꼼짝 못하던 '고객은 왕' 노릇을 기껏 다 팔아야 일에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할머니 앞에서 하다니요.

주님, 제가 만일 주님께 심판 날 “제가 앓을 자리는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죄인 중에도 가장 얼굴 가죽 두꺼운 죄인이 되겠지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끄러움이 뭇지 깨닫게 하소서.